

찬기파랑가(讚耆婆郎歌)의 창작동인(創作動因)에 관(關)한 연구(研究)

저자 (Authors)	최철
출처 (Source)	국어국문학 61 , 1973.7, 131-134 (4 pages)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61 , 1973.7, 131-134 (4 pages)
발행처 (Publisher)	국어국문학회 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73561
APA Style	최철 (1973). 찬기파랑가(讚耆婆郎歌)의 창작동인(創作動因)에 관(關)한 연구(研究). 국어국문학, 61, 131-13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04 11:1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 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讚耆婆郎歌의 創作動因에 關한 研究

崔

喆

1.

신라가요 [鄉歌·詞臘歌]에 관한 문예학적 연구의 기초 작업 되는 것은 언어학적인 해독과 주석을 겸하여, 이들 노래가 만들어진 사건과 배경에 관하여 알아 보는 일이다. 언어학적 측면에 따라 신라가요의 완전한 해독이란 현재의 여건으로는 거의 불가능 하다는 것이 학계의 통념이다. 다만 小倉進平·梁柱東 教授를 비롯한 이 방면 연구자들의 주석과 해독에 근거를 두고, 비교종교학적, 민속학적, 설화 또는 시문학적인 제 측면에서 연구를 시도해 왔던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신라가요 연구의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이들 노래가 만들어진 역사적인 사건 배경을 ‘讚耆婆郎歌’를 들어 논의해 보고자 한다.

‘讚耆婆郎歌’의 創作動因의 說話는 餘他 ‘삼국유사’ 소재 신라가요와는 다르게 기록 되었다. 특히 기술순위와 방법에 있어서도 特異할 뿐 아니라 그 창작동인이라고 볼 수 있는 기록에도 많은 異見과 문제점이 내포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讚耆婆郎歌’의 창작동인에 관하여는 전혀 논의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삼국유사’ 기록에서도 이 노래를 짓게된 사건 배경과 내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 되어졌다.

2.

‘讚耆婆郎歌’와 관련된 사건 기록은 ‘삼국유사’ 권 2 景德王·忠談師·表訓大德條와 讚耆婆郎歌曰條에 있다.

景德王·忠談師·表訓大德條에는 景德王이 忠談師를 통해 ‘理安民歌’를 얻는 과정에 관련된 얘기가 노래와 함께 기술되어 있다.——‘理安民歌’는 王權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정치·사회제도의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 지어진 일종의 治理歌의 性格의 노래다——. 다만 ‘讚耆婆郎歌’와 연관되는 얘기는 다음과 같은 한 귀절이 있다.

‘王曰朕嘗聞師讚耆婆郎詞臘歌 其意甚高 是其果乎 對曰然’

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讚者婆郎歌’는 忠談師의 作으로 ‘理安民歌’(경덕왕 24년) 보다 일찍 지어졌다.

‘讚者婆郎歌’를 경덕왕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

者婆郎을 讚한 노래는 그 뜻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 王과 忠談 사이의 대화에 나온다.

者婆郎을 讚했던것과 꼭 같은 (매우 뜻이 높은) 노래를 나[王·국가]를 위해 지어 달라는 점 ——理安民歌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실들 중에서도 특히 ‘讚者婆郎歌’의 뜻이 매우 높다는 사실은 이 노래의 성격을 규정 짓는데 중요한 문제점을 시사해 주는 동시에 그 창작동인의 說話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의구점을 풀어 주는 자료도 된다. 사실 신라가요는 그 노래와 함께 창작동인의 기사에 있어서도 고도한 상징과 비유로서 절절해 있기 때문에 이의 해석에는 많은 문제점이 따른다.

경덕왕과 忠談사 사이에서 밝힌 ‘讚者婆郎歌’의 뜻 높음은 私私로운 한 個人의 人格 높음을 예찬 추모한 것을 넘어 나라의 중대한 사건과 연관 되는 일종이 護國의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적어도 治國의 理道를 구하는 자리에서 ——理安民歌—— 王과 忠談 사이의 대화에 뜻 높다고 한 것은 결국 護國의인 治理의 문제와 연관 되는 것이다. ‘理安民歌’條에 이 노래를 언급한 사실은 이를 반증해 주는 동시에 특히 南山三花嶺彌勒[護國神]에 祭禮를 올리는 기록과는 서로 밀접히 대조됨을 볼 수 있다. 이것은 ‘讚者婆郎歌曰條’를 볼 때 더욱 명확해 진다.

‘讚者婆郎歌曰’條에는 먼저 十句體의 노래가 나오고 그 이하는 景德王이 자식을 얻기 위하여 大德을 통해 上帝께 간청하여 자식을 얻게 되는 과정의 얘기가 기록 되어 있다. 이가 곧 惠恭王이다. 그럼 왜 ——然은 ‘讚者婆郎歌曰’條에 이같이 王世子 출생에 관련된 얘기를 넣었을까? 필자는 이 사건 기록과 ‘讚者婆郎歌’와는 어떤면으로든지 밀접하게 관련 지어지는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본다. 곧 해공왕의 출생담을 곧 ‘讚者婆郎歌’의 創作動因 說話로 보고자 한다.

경덕왕이 뒤를 이을 자식이 없어 褒訓大德을 통해 天帝께 告하여 겨우 자식을 얻는다. 이렇게 예씨 얻은 자식, 왕으로 볼 때는 녀랄 수 없는 기쁨인 동시에 그 자식을 소중히 여긴은 대단했을 것이다. (여러가지 역경을 물리치고——王의 신체적 장애·왕비예비·天帝께 告·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등——) 忠談사가 者婆郎을 讚한 것은 곧 출생한 王世子の 사람됨과 壽命이 마치 者婆郎과 같기를 祝願한 것으로 본다. ‘鄉歌는 다만 신라사회에 유행하던 俗歌以上

으로 鄉謔으로서 佛敎의 祝願과 獲願의 노래(金東旭)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讚者婆郎歌曰'條에 혜공왕 출생과정담을 넣은 것은 이같은 일종의 발원이라고 본다. 王世子の 발원이므로 '讚者婆郎歌'는 그 뜻이 매우 높은 것이다. '讚者婆郎歌' 기술에 있어서도 먼저 노래를 놓고 그 아래 혜공왕의 출생 과정을 설명한 것도 왕세자가 촌郎처럼 되라는 기원 때문이고, 특히 讚者婆郎歌曰條를 앞의 景德王 忠談師·表訓大德條에 넣지 않고 따로 독립시켜 별도 소속 시킨 것은 王世子 관계의 뜻 높은 기록인 동시에 이에 따르는 불교적 발원 讚歌인 때문이다.

참고로 耆婆는 長命의 뜻으로 수우트힐의 '중국불교용어사전'(W.E. Soothill; A dictionary of chinese Rudhist Terms)에 '耆婆命無數劫'(The infinite life of Budha)으로 기록 되어 있다. 그리고 表訓·忠談등도 上記 說話의 내용과 짝지어지는 것으로 餘他的 '삼국유사' 소재 인물명과 함께 실존 인물 보다는 架空의이고 一然의 意識의 作名 같다.

〈부록〉: 景德王·忠談師·表訓大德條와 讚者婆郎歌條

〈參 考〉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德經等. 大王備禮受之. 王御國二十四年. 五岳三山神等, 時或現侍於殿庭. 三月三日, 王御歸正門樓上. 謂左右曰. 誰能途中得一員榮僧偈來. 於是適有一大德, 威儀鮮潔, 徜徉而行. 左右望而引見之. 王曰. 非吾所謂榮僧也. 退之更有一僧, 被衲衣, 負櫻筒, 一作荷寶從南而來. 王喜見之. 邀致樓上. 視其筒中. 盛茶具已. 曰. 汝爲誰耶. 僧曰忠談. 曰何所歸來. 僧曰. 僧每重三重九之日, 烹茶饗南山三花嶺彌勒世尊. 今茲既獻而還矣. 王曰. 寡人亦一甌茶有分乎. 僧乃煎茶獻之. 茶之氣味異常. 甌中異香郁烈. 王曰. 朕嘗聞師讚者婆郎詞謔歌, 其意甚高. 是其果乎. 對曰然. 王曰. 然則爲朕作理安民歌. 僧應時牽勅歌呈之. 王佳之. 封王師焉. 僧再拜固辭不受. 安民歌曰. 君隱父也 臣隱愛賜尸母史也 民焉狂尸恨阿孩古爲賜尸知民是愛尺知古如 窟理叱大勝生以支所音物生此盼喚惡支治良羅此地盼捨遣只於多是去於了 爲尸知國惡支持以 支知古如後句 君如臣多支民隱如 爲內尺等焉國惡太平恨音叱如

讚者婆郎歌曰

咽鳴爾處米 露曉邪隱月羅理 白雲音逐于浮去隨安支下 沙是八陵隨汀理也中 者郎矣 泉史是史藪耶 逸烏川理叱磯惡希 郎也持以支如賜烏隱 心未際叱盼逐內良 齊 阿耶 稻史叱枝次高支好 雪是毛多乃乎尸花判也.

王玉莖長八寸。無子。廢之。封沙梁夫人。後妃滿月夫人。謚景垂太后。依忠角干之女也。王一日詔表訓大德曰。朕無祜不獲其嗣。願大德請於上帝而有之。訓上告於天帝。還來奏云。帝有言。求女即可。男即不宜。王曰。願轉女成男。訓再上夫請之。帝曰。可則可矣。然爲男則國殆矣。訓欲下時。帝又召曰。天與人不可亂。今師往來如隣里。漏洩天機。今後宜更不通。訓來以天語諭之。王曰。國雖殆。得男而爲嗣足矣。於是滿月王后生太子。王喜甚。至八歲王崩。太子即位。是爲惠恭大王。幼冲故。太后臨朝。政條不理。盜賊蜂起。不遑備禦。訓師文說驗矣。小帝旣女爲男。故自期倅至於登位。常爲婦女之戲。好佩錦囊。與道流爲戲。故國有大亂。(終) 修爲宣德與金良相(敬信)所弑。自表訓後。聖人不出於新羅云

바다(海)와 六堂의 詩心

洪 一 植

1. 導 入

우리의 新文學史가 보다 主體的인 立場에서 再構成되어야 하겠다는 當爲의 要請은 지난 60年代 初期부터 少壯學者들 間에 活潑히 論議되어 왔다. 開化 期問題에 對한 이러한 再檢討의 要請은 비단 우리 國文學分野에 국한된 문제 가 아니라 一般史를 비롯한 各 特殊史分野에서도 거의 共通의인 現象으로 나타나고 있다. 例를 들면 最近 國史學界에서 論議되고 있는 獨立協會를 中心으로 한 開化自強思想의 問題, 開化思想과 實學思想과의 連結의 試圖, 또는 社會·經濟史方面에서 論議되고 있는 朝鮮朝 後期 商業資本의 發達過程問題 등등은 모두 이러한 現황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論議가 어찌서 하필이면 60年代 初에서 비롯하여 70年代에 와서 活潑하여 지느냐 하는 問題와 또한 이러한 論議에 積極의이고 主流를 이루는 學者는 대개가 30代와 40代에 있는 少壯層이라는 事實은 客觀的으로 무엇을 示唆하는 것일까

筆者는 이것을 우리의 國學研究가 지난날 盲目的 自己 肯定時代를 지나 이질된 自己 否定時代를 거쳐 비로소 自己 肯定의 時代에 定着하려는 징조로 보고자 한다.